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구역회 참석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회 관계로 선교회 모임을 오후 1:30부터 시작합니다.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 교회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유치부가 25일(토) 일산 킨더랜드로 나들이를 갑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5일, 26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열립니다.

새해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지하식당 앞)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부터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의 정원을 채워서 앉아 주십시오.

한기택 씨와 장혜정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5일(토) 낮 1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매일 아침 해를 바라보며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길 목상하십시오.

사 49:1~7 / 시 40:1~11

고전 1:1~9 / 요 1:29~42

말 3:13-18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현주 김경혜 최숙화 김세진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이승진 이소순 강세기

오늘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정영우 김지윤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박경선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린 뿌연 먼지처럼 우리의 영혼에 드리워진 잡스러운 상념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주변을 뒤덮고 있는 답답한 기운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 하늘부터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점점 삶의 온기를 잃어가고 냉랭해져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이 움츠러들 듯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의 냉랭함을 녹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고숙이 권미정 김경혜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김성한 조영순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호선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정민 이해령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준호 곽해자 김철수 유영남 김향자 김현주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문복순 문홍일 박기영 박상욱 박시내
박영희 박예림 박옥순 박유경 김성우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백묘현 백성래 서원금 성지현 송동준 김진경 심상숙
안길상 이형숙 안세진 양상철 박재란 우순덕 원요일 최현선 원인해
원주신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경민 이광섭
이광용 이광재 이근식 신영신 이나단 이봉옥 이부곤 이용석 이우상
이계월 이유진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이자영 이재문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임 영 정경례 임호성 장기욱 장동훈 정두리
정선희 정영례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정현모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조순덕 조항범 오현정
주은경 차혜심 최숙화 김정길 최양순 최종원 최철수 곽권희 하정석
이명희 한기택 한완식 임정자 허신열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3

감사헌금

강희정 김정남 김경수 원주신 이은옥 전해민 김성공 한미영 한창희
김미진 홍순구 안홍숙 무명5

생일감사헌금 이미혜

녹색꿈헌금 박호규 시시권 백경임 무명5

마음으로 읽는 글

고요한 물

- 도종환

고요한 물이라야
 고요한 얼굴이 비추인다
 흐르는 물에는
 흐르는 모습만이 보인다
 굽이치는 물줄기에는
 굽이치는 마음이 나타난다
 당신도 가끔은
 고요한 얼굴을 만나는가
 고요한 물 앞에 멈추어
 가끔은 깊어지는가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헛된 것들에 한눈팔지 말고 때를 분별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삶을 기준 삼아 시대를 읽어가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시대의 혼탁함을 탓하면서도 옳게 때를 분별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성실하게 뒤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성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김태환 선생 정원석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조병무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 있다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욕의 위안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는 걸 재차 확인하려고 든다. 그런 느낌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그러나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충고를 하나 하겠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좋아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느 쪽이든 우울증 걸린 상대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자신은 위안을 얻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 파커 파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파머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40대에 접어들어 갑작스레 우울증에 걸렸다. 이 사실만으로도 같은 시기에 질병을 앓는 내게 한없는 위안이 됐다. 그는 우울증이 심했을 적엔 햇볕을 쬐라는 조언도, 그동안의 성취에 대한 칭찬도,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공감의 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려는 감동적인 시도조차 지나치게 자신을 까발리는 결과가 되어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 어쩔 이리 나와 똑같은지!

남의 고통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용단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기도 남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만 실은 고통 받는 사람 곁을 지키며 가만히 있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친구의 상태와 같아지는 것은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육신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장 바니에도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에서 이렇게 말한다. “흔히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만, 그래서 내가 선량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니에는 계속 말한다.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에 빠진 사람 앞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무슨 일이든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습니다. 고통 받는 이와 함께 거하려면,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마리아처럼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달아난 것은 자기들도 잡혀 죽을 거라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죽어가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회피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욕의 친구들처럼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제자들처럼 상황을 회피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영성이 고통 받는 이를 구원하리라.